

전주시, 어버이날 기념행사 개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송영필씨, 장한어버이로 선정 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유공자 등 수상의 영광... 기념식 앞서 공연 등 다채

전주시는 8일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전주시회의장, 각급 단체장, 전주 지역 어르신, 일반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7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주시노인복지관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어버이날을 맞아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송영필 씨(80세)가 장한어버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효행상과 노인복지유공자, 유공공무원, 봉사공로 어르신 등 총 23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기념식에 앞서 진행된 문화공연에서는 밴드 및 난타 공연, 품바공

연, 버꾸춤 등 화려하고 멋진 축하 공연이 펼쳐졌으며, 마지막 순서로 어버이 은혜 합창도 이어졌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긴 세월 우리를 이만큼 바르게 키워주신 모든 부모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한꺼번에 갈을 수는 없지만 고생하신 어르신들이 따뜻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오늘 하루만이라도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입가에 미소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재활용쓰레기 지원금 86억 빼돌려

검찰, 업체들 무더기 기소

폐비닐의 회수·선별 및 재활용 업체가 제출하는 서류 심사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의 허점을 악용해 지원금 86억원 상당을 빼돌린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주시검은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10개 업체를 적발해 대표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전주시검은 지원금을 빼돌린 증거를 확인하고도 허위 현장조사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혐의(업무방해)로 한국환경공단 간부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 관련 9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폐비닐 회수·선별업체 대표 A모(59)씨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폐비닐 2만 7천 600t을 재활용업체에 인계한 것으로 허위계량확인서를 제출, 22억 7천여만원의 지원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3개 회사 회수·선별업체 대표도 같은 수법으로 13억 7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호남권 최대 규모의 재활용업체 대표인 B모(58)씨는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만 2천 72t 규모의 재생원료 등을 생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허위로 신고,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로부터 21억 4천여만원의 지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10개 업체는 같은 수법으로 폐비닐 4만 2천 400t으로 총 85억 9천 300여만원의 지원금을 챙겼다. 폐비닐 4만 2천 400t은 국내 연간라면 소비량 약 36억개보다 3배 많은



수도권 호남지역 80억 원대 재활용 쓰레기 지원금 편취 및 감독기관 비리 수사 결과 브리핑이 8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 총회의실에서 실시된 가운데 김관정 전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라면 봉지 90억개 규모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의 범행은 현장조사나 증빙을 하지 않아도 신고서만 작성하면 되는 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상황을 알고도 묵인한 감독기관 직원들로 인해 수년간 이들의 범행이 드러나지 않았다.

한국환경공단 호남지역본부 과장과 팀장은 지원금 편취 증거를 확인했으나 2016년 7월 현장조사 중 업체의 시간당 재활용 가능량을 부풀려주는 수법으로 허위보고서를 작성했다.

또 해당 과장은 지난해 10월 업체로부터 지원금 단가가 인상될 수 있도록 품질등급을 높여달라는 청탁을 받고 평가 점수를 과다부여한 혐의(부

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을 받고 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팀장은 업체의 지원금 편취 증거를 확인하고도 2017년 12월 허위 소명자료를 조사하지 않고 해당 업체를 무혐의 조치했다.

또한, 해당 센터의 다른 팀장은 지난해 2월 지원금 편취 사실이 확인된 업체로부터 제재를 최소화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았다.

검찰은 환경부와 공조 수사를 진행해왔으며, 환경부는 적발된 10업체에 대해 유통센터와 계약해지를 하고 편취 지원금도 환수할 방침이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보건소 '건강한 출산 도와요'

29일까지 매주 수요일 25주 이상 임신부 대상 순산체조교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에 나선 전주시가 맞춤형 교육으로 시민들의 건강한 출산을 돕고 있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는 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매주 수요일 25주 이상 임신부를 대상으로 순산과 태아의 건강을 도와주는 '순산체조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순산체조 교실은 임신기간 중 분만에 대한 불안을 제거하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 분만을 순조롭게 진행시키기 위한 것으로, △임산부 명상요가와 증상별 요가 △태아와 함께하는 명상 △분만대처법 △산전요가 △산후요가를 주제로 4주기에 걸쳐 진행된다.

이와 함께 전주시보건소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예비부부 건강검진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산후 우울증 관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다양한 모자건강사업을 전개해오고 있다.

앞서, 전주시보건소는 지난해 22회

에 걸쳐 출산준비교실을 운영했으며, 총 635명의 임신부가 교육에 참여했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임신부는 "가까운 보건소에서 임신부 체조를 무료로 배울 수 있어 좋았다"면서 "명상과 순산체조를 통해 자연분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출산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참여소감을 밝혔다.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신과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해 예비부부의 두려움을 덜어주고 출산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적극 도울 계획"이라며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전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순산체조교실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임신부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 시작일 한 달 전부터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63-281-6267~8)로 접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혁신도시 안전 자전거도로 개설

전주시, 행안부 브랜드화 지원 최종 선정 국비 확보 염순공원·기지제 연결 순환형 조성·안전교실 운영

전북혁신도시 온빛중학교 통학로와 염순공원, 기지제를 연결하는 안전한 자전거도로가 개설된다.

전주시는 올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총 3억원을 투입해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하는 학생과 지역주민의 여가생활을 돕고, 전북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정비·개설할 계획이다.

자전거도로가 정비·개설되는 구간은 자전거 시범학교로 운영중인 온빛중학교 인근통학로를 시작으로 온빛초등학교, 염순공원, 기지제까지다.

특히 시는 자전거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도로를 인도와 구분 설치할 예정으로, 터널형 육교보도로 단절된 학생들 통학로와 염순공원, 기지제 구간의 자전거이용이 편리해지게 됐다.

오토바이 헬멧 흡친 50대 검거

오토바이 헬멧을 흡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시 25분경 전주시 완산구 모 빌라 주차

장은 향후 명품생태공원으로 탈바꿈되는 기지제 주변에는 학생 등 지역주민들의 여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공영자전거대여소를 설치하고 자전거안전교실과 자전거 수리센터 등 자전거 관련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장병호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전주시는 모든 시민들이 생태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관련 인프라 구축과 안전교육, 자전거보험가입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인프라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모사업에는 전국 23개 지자체가 응모했으며, 1차 서면심사와 2차 컨설팅 및 대면심사를 거쳐 전주시를 포함한 6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 /송효철 기자

장 오토바이 배달통에 보관중이던 시가 3만원 상당의 헬멧을 흡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강석훈 기자

범죄신고 112 · 화재신고 119

전주시, 2차 생태도시

사람들 이끌림 교육

전주시가 시 산하 기술직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8일 중부비전센터에서 토목·건축·지적·녹지직 등 시 산하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태도시 사람들 이끌림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생태도시 조성 관련 분야 전문가를 강사로 초청해 국내의 선진도시의 혁신사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생각과 시야를 넓히는 교육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이날 교육에는 오창환 전북대학교 교수가 강사로 나서 '생태도시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생태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국내·외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강의했다.

오 교수는 이 자리에서 "가장 인간적인 도시, 사람 냄새나는 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시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생태"라며 "전주시가 진정한 생태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를 물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송효철 기자

'왜 쳐다봐?' 행인 폭행

경찰관에게 주먹질 조폭 검거

쳐다보는게 기본 나쁘다는 이유로 행인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질한 조폭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모(24)씨 등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일행 B모(24)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이날 오전 3시경 군산시내 한 노상에서 행인 3명의 얼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의 얼굴과 가슴 등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행인 3명이 자신들을 기본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강석훈 기자

낙시대 8개 흡친 50대 덮임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낙시대를 흡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8시경 남원시 섬진강에서 3백만원 상당의 낙시대 8개를 흡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모(54)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석훈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